

기도

1.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나는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2.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나의 유익이었던 것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신앙

주홍색과 진홍색

본문에 등장하는 염료들은 착색 효과가 대단히 지속적이고 강한 것으로, 눈에 바로 띄면서도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다. 구약 성경이나 고대 근동 문헌에서 흰색이 순결을 상징한 경우는 있었지만, 붉은 색이 죄의 상징으로 사용된 경우는 전혀 없었다. 이처럼 죄는 전무후무한 것으로써 우리에게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보혈의 붉은 색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씻을 수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구역 공과

2023년 7월 23일

우리 서로 의논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우리 서로 의논하자

이사야 1장 18-20절 (찬27장, 254장)

하나님께서서는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과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서로 의논하자는 말씀입니다(18절a).

하나님께서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18절a).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이 붉게 되었다는 것은 그 죄가 명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심판 받아야 하는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기보다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의논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고 의는 상 주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의를 뛰어 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앞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의논할 때, 놀라운 사랑의 회복과 소망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논하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절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강압적으로 명령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18절b).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8절b)**. 이는 눈이 온 세상을 덮어 하얗게 하는 것 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하얗게 덮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18절c)**. 양은 본래 하얀 털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자랄수록 때가 타고 더러워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지만,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더러워진 양털이 다시 본래의 하얀색을 되찾는 것처럼, 죄로 인해 상하고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루어집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흘림이 필요합니다(히9:22).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분의 피흘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할 때 모든 죄가 완전히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단 한번의 제사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모두 씻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19-20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이십니다(19절). 이 소산은 영적인 복으로써,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내세가 잘 준비되는 복입니다. 반면에 거절하여 배반하는 자는 칼에 삼켜지게 됩니다(20절). 이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를 돕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찌르고 상하게 하는 칼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우리와 의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 공의에 앞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할 때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악이 그리스도의 의로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복이 임합니다. 반면에 거절하여 배반하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것이 자신들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의논하여 회개할 때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